페이드 인 / 학교  
3월에서 4월로 바뀌었지만 익숙한 학교 풍경, 똑같은 건물... 매일 똑같은 일상.  
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다르다.  
왜냐하면... ‘방금’ 추악한 더러운, 교양 하나를 드랍했으니까!

안 그래도 많은 팀플 수업에.. 하필 개 노답 삼형제가 걸리다니.... 이건 런쳐야지

(꼬르륵)

..동기한테 밥은 먹었는 지 전화나 해봐야겠다.

....

....삐-

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 샘으로...

(문자음)

*나 지금 동기들이랑 팀플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 바쁘다.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~*  
요즘 과제 하는 애들이 한창이구만.

나만 한가한 거야?

…

놀랍게도 사실이였다.  
흡.., 바로 집 가기에는 거리도 있고 어쩌지?  
**1. 편의점을 들린다.**

자취하다 보니 요리하는 것도 귀찮은데... 혼자 편의점이라도 들릴까?  
그냥 적당히 때우던가 해야지.

**2. 집으로 바로 간다.**아, 생각해보니 리모컨 배터리가 다 떨어졌었지.

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배터리 살 겸 밥도 사가야겠다!  
------  
페이드 인 / 편의점 / 페이드 아웃

…

지금 나에게 정말 정말, 중요한 고민이 생겼다.  
**치즈돈까스 김밥이냐…오삼불고기 김밥이냐… 이것이 문제로다…  
1. 치즈돈까스 김밥  
2. 오삼불고기 김밥**

**..오늘은 이거다!**

몇 초간의 힘겨운 전투 후, 계산대로 가보니 한 여자가 대낮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딸기우유를 계산하고 있었다.

계산이요.  
대체 무슨 조합이지? 그래도 예쁘면 다 어울리는구나…

…  
누구 닮았는데… 연예인...? 아, 아닌데 쓰읍.  
알바생이 느끼기에도 예뻤는 지, 얼굴을 붉힌 채로 여자의 얼굴을 몇 초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.  
손님을 저렇게 쳐다봐도 되는 건가? 요즘은 쳐다만 봐도 신고 당하는 세상인데...

헛기침으로 눈치나 한 번 줘야겠.

뭘 봐요, 계산 안해요? (경멸)  
/아, 아 죄송합니다!

아! 기억났다.

저 말하는 싸가지를 보니 연예인은 개뿔. 그 때 다짜고짜 번호 달라던 했던 미친 년이였다.  
진짜 요즘 재수 옴이 붙었나? 무당집을 가야하나?

정말로 재수 옴이 붙은 것인 지, 그녀와 눈이 마주쳐버렸고…

어?

미친년은 나를 한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.

옹이 눈깔!

**사람 잘못 보셨습니다……**

아, 뭐래. 그때 그 알바생 맞잖아~? (웃음)

하아, 저번 일 때문에 이 사람이랑은 정말 엮이기 싫은데..  
**계산 끝났으면 얼른 가.시.죠? 저도 계산해야 하는데..**  
갈거야-. 참을성 좀 길러봐 꼬맹아. (웃음)

근데 너… 계향대학교 다니니?

**네? 어떻게…**  
뭔 생각을 하는 거야?  
**아.**  
나 과잠 입었지?  
그녀의 눈길을 따라 내려다본 곳에는 떡 하니 ‘계 향 대 학 교’가 박혀 있었다.

풉, 뭐야… 옹이 눈이라 오늘 입은 옷이 뭔 지도 안보이나 봐?

그녀는 벙찐 나를 보며 키득거렸다.

야 알바! 여기서 제일 많이 나가는 라이터랑 담배 좀 줄래?

/네? 잘나가는 라이터요?

이 미친년은 아무래도 정신연령이 많이 어린 듯하다…

아, 아무거나 줘!! (당황 화냄)  
그녀는 이상한 주문을 한 후, 뻘쭘했는 지 괜한 알바생에게 화를 내고선 담배를 사들고 편의점을 나갔다.

**불쌍하구만…**

안습한 얼굴로 알바생의 어깨를 한 번 토닥여 준 뒤 서둘러 편의점을 나왔다.

페이드 인 / 편의점 옆 골목 / 페이드 아웃

이름이 한서령…이랬나?   
얼굴이랑 딱 맞는 이름. 화려하다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.

**방금 담배 사간 거지? 하긴, 안 필 것 같진 않다….**

야 옹이 눈깔!

제발 그냥 좀 가라!!

아~ 난 담배피는 남자 싫은 데에.

**뭐, 뭐라고요?**

담배피는 것은 어떻게 안 건지... 당황한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 어여쁜 얼굴로 이해하기 힘든 표정을 짓는 한서령에게 굳이 말을 걸고 싶진 않았다.

흐응-. 한 대줘?

나에게 다가오는 그녀는 홀릴 만큼 예뻤지만…

이 강렬한 니코틴 냄새...!!

훠이 훠이. 니코틴에 홀리기 전에 어서 가야지…

**안사요.**

대체 뭐가 맞는 거고 담배 핀 것은 어떻게 안 것인 지. 여러가지 잡생각이 났지만 그녀가 담배를 꺼내는 것을 본 나는 슬픈 마음…을 부여잡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.

또 봐 옹이눈~!

…갔나?

...콜록 콜록.

켈록… 이 씨, 이런 건 왜 펴선...!!

멀어지는 등 뒤로 달달한 담배 향이 났다.